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개성 vs 장충 결승... 양팀 감독 출사표

“공·수 탄탄 첫 우승 자신”

■ 개성고 김상재 감독

“부산 사나이다운 끈질긴 승부로 무등기 우승을 노리겠습니다.”
탄탄한 마운드의 야탑고를 누르고 제 16회 무등기 결승에 진출한 개성고 김상재 감독이 부산의 ‘깡’을 앞세워 장충고와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대회 첫 경기에서 난적 군산상고를 만나 힘든 승부를 펼쳤던 개성고는 야탑고와의 준결승에서도 초반 4점을 뽑아내며 4-1의 리드를 지켰지만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하며 끝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김 감독은 “9회 투 아웃 이후야 비로소 승리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서 “앞선 경기에서 부진했던 전병우가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됐다”고 밝혔다.
당초 4강을 목표로 대회에 참가한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지만 김 감독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고된 활약을 펼쳐줘 목표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결승까지 오른 만큼 끝까지 공·수에서 빈틈없는 승부를 펼쳐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결승행을 확정 지은 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승기를 차지하자고 선수들을 독려했던 김 감독은 “마운드 전력은 장충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타격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고 결승전을 예상했다.
김 감독은 장충고의 발 빠른 타자들이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개성고가 투수력이 좋은 강팀들을 꺾으며 결승에 오른 만큼 타자들이 자신감 있는 승부를 펼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결승에 오른 개성고 김상재 감독(왼쪽)과 장충고 유영준 감독이 22일 결승전을 앞두고 지난 20일 경기장에서 1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됐다

“막강 타선 2007 영광 재현”

■ 장충고 유영준 감독

“짜임새 있는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무등기 제패함에 나서겠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 동성고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한 장충고 유영준 감독이 2년 만에 무등기 우승에 재도전한다.
지난 2007년 최강의 마운드를 앞세워 무등기 우승을 이끌었던 유 감독은 이번에는 ‘타선의 집중력’을 필승카드로 내세워 2007년 영광 재현을 준비하고 있다.
유 감독은 “에이스 고대환이 부상으로 마운드에 나서지 못하지만 발 빠르고 재치있는 타자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다”며 “타선의 기동력과 공격력으로 개성고 마운드를 공략해 우승기를 안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감독은 공주고와의 16강전에서 홈스틸을 성공시키며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던 무등의 테이볼 세터 김건호의 타격과 기동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동성고와의 준결승에서 집중력있는 승부끝에 10-1의 대승을 거두면서 선수단의 사기도 최고조에 올랐다.
유 감독은 “동성고와의 준결승이 가장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회부터 2점을 뽑아내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며 “무등기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만큼 선수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고와는 첫 맞대결. 유 감독은 2007년 장충고의 무등기 우승을 조력했던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돼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경험과 자신감에서 개성고에 한 발 앞서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 개성고와 야탑고의 경기. 3회말 개성고 공격. 2사 2·3루상황에서 전병우의 중전 안타로 2루 주자 강동우가 홈인하고 있다.

16번째 무등기의 주인은?

개성-장충, 야탑·동성고 꺾고 오늘 결승전

‘집중력’의 차이가 승패의 향방을 갈랐다.
2007년 무등기 우승에 빛나는 장충고가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에서 ‘속작’ 동성고를 10-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개성고(옛 부산상고)도 야탑고와의 준결승에서 4-1로 승리하며 장충고와 최후의 승부를 벌이게 됐다. 16번째 무등기의 주인은 22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대회 결승전에서 가려진다.

장충고 10-1 동성고

팽팽한 승부가 예상됐던 장충고와 동성고의 경기는 일단 실력으로 일찌감치 승패가 갈렸다.
1회부터 동성고의 실책이 나왔다. 1사 만루에서 3루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3루주자가 홈을 밟았다. 이후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탠 장충고는 2-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3회 장충고가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을 묶어 다시 2사 2·3루의 기회를 잡았다. 최용준의 1타점 적시타에 이어 투수 이영기의 폭투가

나오면서 4-0.
4회 1사 1루에서 장충고의 김건호가 볼넷으로 출루 한 뒤 도루에 성공하면서 2루를 밟았다. 이번에는 투수의 견제구가 뒤로 빠지면서 장충고의 5번째 득점이 완성됐다.
동성고는 1-6으로 뒤지던 7회 채수웅의 2루타에 이은 패스트볼로 1사 3루의 반격 기회를 잡았으나, 강건선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2007년 대회 결승에서 장충고에 지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동성고는 조반부터 불안한 수비에 마운드까지 붕괴되면서 1-10으로 저 실욕전에 실패했다.
장충고 선발 정다현은 자신의 두 번째 전국대회 등판에서 3피안타 4사사구 1실점으로 완투승을 거두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야탑고 1-4 개성고

개성고는 좌완 에이스 이현준을 앞세운 야탑고를 4-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야탑고의 에이스 이현준이 1회부터 세 개의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고, 개성고는 신승철의 희생번트로 선취점을 올렸다.

2회초 야탑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볼넷으로 출루한 투수 겸 6번 타자 이현준이 정인식의 중전안타 때 3루까지 진루했지만 백범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에 파고들다 야우이 됐다. 하지만 야탑고는 이어진 1사 1·2루에서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밀어내기 1점을 만들며 1-1로 균형을 맞췄다.
3회 야탑고의 실책이 승부를 갈랐다.
장충고의 공격이 벌어진 3회말 선두타자 박세준의 땅볼을 처리하던 유격수가 송구실책을 범하면서 무사 1루가 됐다. 두 개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투아웃이 됐지만 주심·강동우·전병우의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4-1로 개성고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조반의 공방전이 벌어진 뒤 약팀 타선이 침묵을 이어갔다.
개성고는 7회 선두타자 박준태가 2루타로 출루했지만 견제수를 당하는 등 3회 이후 모든 이닝을 삼자범퇴로 마무리하며 힘겹게 3점의 리드를 지켰다.
야탑고는 5·6회 볼넷으로 선두타자가 출루했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이후 9회 상대의 폭투로 1사 2루의 마지막 반격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마저도 무위에 그치면서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김여울기자 wool@

박찬호 1이닝 무실점... 세번째 홀드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3할 타율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이틀 만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세 번째 홀드를 추가했다.
박찬호는 21일(한국시간) 시타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서 5-3으로 앞선 8회초 등판, 1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삼진 2개를 잡으며 역투했다.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는 선두타자 아담 존스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어 타석에 선 오브리 허프에게 시속 148km의 빠른 직구에 이어 시속 128km짜리 느린 커브를 던져 타이밍을 빼앗으며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박찬호는 세 번째 타자인 타이 위긴튼까지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박찬호는 1이닝 동안 2점차 리드를 잘 지켜내 홀드를 기록했고 시즌 평균자책점은 6.14에서 6.02로 조금 낮아졌다.
필라델피아는 박찬호에 이어 9회초 등판한 마무리 라이언 매드슨이 1이닝 2방을 얻어맞으며 3실점째 5-6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때려내며 시즌 타율을 3할대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한 경기에서 4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를 때렸다. 삼진을 2개 당했지만, 볼넷도 3개나 골라냈다. 1회 초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4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투수 테드 릴리의 시속 132km짜리 직구에 버트 안타를 뽑아냈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홈을 밟지는 못했다.
6회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8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골라내었으나 역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4-4 동점인 9회에는 2사 2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섰으나 상대 투수 아론 헤일먼이 고의 사구로 거르면서 출루했다. 타율은 0.299에서 0.300으로 다시 3할대를 넘겼다.
클리블랜드는 13회 초 루이스 발부에나의 솔로 홈런으로 5-4로 앞섰으나 13회 말 안드레스 블랑코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동점을 허용한 뒤 마무리 투수 케리 우드의 폭투로 5-6으로 역전패당했다. /연합뉴스